



April 20, 2016

Global

2015년도 생명공학작물에 관한 ISAAA 연례 보고서, 중국 베이징에서 발표

ISAAA의 설립자이자 명예회장인 클라이브 제임스에 의해 작성된 생명공학작물의 글로벌 상용화 20주년 기념(1996-2015) 및 2015년도 생명공학작물 주요 내용에 대한 ISAAA 연례 보고서(annual brief 51)가 지난 2016년 4월 13일 중국 베이징기자 회견에서 발표되었다. ISAAA 의장인 Paul S. Teng 박사는 20년 간의 생명공학작물의 성과와 2015년도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2015년 생명공학작물의 세계 재배면적은 28개국 1억 7,970만 헥타르이고, 이는 2014년도의 1억 8,150만 헥타르와 비교했을 때 1%(180만 헥타르)의 감소량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소량 감소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상업작물의 현재의 낮은 가격 때문이며, 작물 가격이 인상이 되면 재배 면적이 다시 증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전망을 보면 현재 생명공학 재배면적의 확대, 진행중인 새로운 생명공학작물 그리고 새로운 형질 및 상품을 개발 중인 NBT(New Breeding Technology) 기술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ISAAA 글로벌 코디네이터인 Randy Hautea 박사가 아시아 생명공학작물 개요 (*Overview of Biotech Crops in Asia*)를 발표했으며, 이어 중국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농산업 담당관인 Hernan Viola가 생명공학이 아르헨티나 농업에 주는 혜택 (*Biotech Benefits to Argentine Agriculture*)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30여 개의 언론매체들- 업계, 일반인, 사업체, 온라인, 방송 및 해외 언론에서 기자 회견에 참석했다.

ISAAA Brief 51문서를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SAAA website](http://www.isaaa.org)
혹은 기자 회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nowledge.center@isaaa.org

Africa

아프리카 농민들 2015년에 생명공학작물 350만 헥타르 재배

최신 ISAAA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아프리카에서 GM작물을 재배한 국가는 3개국이며, 수확량을 높이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기회를 놓친 다른 국가들의 농민들은 재배를 그만두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의 경우, 2015년은 생명공학작물의 성공적인 상용화의 18주년의 해이다.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프리카 누적된 재배면적은 350만 헥타르이다. 부르키나 파소(35만 헥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230만 헥타르), 수단(12만 헥타르)은 생명공학작물의 상용화를 주도했다. 생명공학작물의 생산은 약 20억 달러의 추산된 경제 이익을 가져왔다고 ISAAA 아프리카센터 책임자 Margaret Karembu가 말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많은 국가에 흉작을 이끄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되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엄청난 피해를 주는 가뭄으로 인해 재배면적의 23%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2015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EMA(Water Efficient Maize for Africa) 프로젝트에서 진행된 내건성형질의 옥수수를 승인했다. 이러한 시기의 적절한 개입은 식량 안보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보도 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SAAA Center](#)
아프리카의 생명공학 및 바이오안전성 현황에 대한 동영상을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Youtube](#)

Asia and the Pacific

중국, 해충저항성옥수수 재배 고려

과학, 기술 및 교육부 사무총장인 Liao Xiyuan은 2016년 4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생명공학 발전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은 식용과 비식용 GM작물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해왔음을 밝혔다.

2015년 중국은 대두 제품 8,170만 톤을 수입했으며, 이는 중국 내 전체 수요의 87.8%를 차지한다. Liao는 세계에서 전체 대두 재배 면적의 82%가 생명공학 대두이기 때문에 수입한 대두의 대부분은 생명공학 대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글로벌 GM 개발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따라서 독자적인 혁신 계획에 대하여 연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업화된 생명공학 면화의 재배를 증진하는 것 외에도 중국은 향후 5년 이내에 해충저항성 생명공학옥수수의 재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보도를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mericas

GM식품의 수용은 교육수준과 소득에 따라 증가

국제 시장 조사 기관인 유고브와 허핑턴 포스트 조사에 따르면 GMO 인식은 교육 수준과 가계 소득에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2016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성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과학적 이슈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신은 유전자변형식품을 먹기에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학 학위를 가진 응답자의 약 절반(49%)이 GM 식품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대학을 수료한 응답자는 36%,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하지 못한 응답자는 22% 정도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소득 또한 GM식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1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가족소득을 가진 응답자의 절반(51%)은 GMO가 먹기에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으며, 그들에 비해 5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는 42% 그리고 5만 달러를 못미치는 응답자는 26%만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연구 조사 결과를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YouGov's website](#)

Europe

유럽식품안전청, 다우아그로사이언스 GM면화 신청에 대한 과학적 의견 발표

유럽식품안전청(EFSA)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합의체는 다우 아그로사이언스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생명공학(GM) 면화 281-24-236 × 3006-210-23 × MON 88913(3개 이벤트 다중 형질 면화라고도 함)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의견을 발표했다.

도입된 형질, 비교 분석 결과, 노출 경로 및 한정된 노출 수준을 고려해 GMO 합의체는 이 3개 이벤트 다중 형질 면화는 생존가능한 GM 면화 종자의 우연한 환경 방출의 경우에도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GMO 합의체는 3개 이벤트 다중형질 면화는 안전하며 일반 상업화품종과 동등한 영양성분을 가졌다고 결론내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FSA Journal](#)

Announcements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한 최신 기술

주제: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한 최신 기술

장소: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서스캐톤

일시: 2016년 6월 14일-16일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sit the website](#)

Document Reminders

환경에서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새로운 OECD 간행물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는 환경에서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성 평가에 대한 새로운 문서 2권을 발표했다. 이 문서들은 2011-2012(Vol. 5)과 2013-2015(Vol. 6)에 생명공학기술의 합의에 대한 OECD 실무 그룹에 의해 개발한 바이오안전성 합의문내용을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olume 5 / Volume 6](#)

